

# 죽어도 제대로 죽는다면 살 길 열리는 게 이 공부

##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조주 선사가 물었습니다.  
 “사중득활시(死中得活時) 여하(如何) 오(죽었다가 살아나는 때는 어떠한가)”  
 이에 투자대동(投子大同)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불허야행(不許夜行)이라도 투명수도(投明須到)입니다. (야간통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날이 밝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생(生)의 한 편에 얽매어 사(死)를 보지 못하거나 사(死)의 한 편에 얽매어 생(生)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화두를 들고서 결제하는 법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송장인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죽어도 제대로 죽기만 한다면 거기에 또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이 공부이기도 합니다.  
 묶을 끈도 없는데 스스로 묶이며, 또 본래 활기찼던 사람이 묶여서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역지로 법도를 만들어서 멀쩡한 화두를 죽은 화두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는 법만 알고 죽는 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는 법조차도 죽게 만들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법은 제대로 공부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화두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반대로 화두를 쥐고서 죽으려 하면 도리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을 찾는 일입니다. 해체 때 돌아다니던 걸음걸이를 죽이고, 원승이 마냥 사방으로 내달리는 번뇌를 죽이고,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치성해지는 망상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죽을 속에서도 미꾸라지 같이 도망가는 화두를 쟁기면서 살 길을 찾는 일입니다. 죽을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항상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중득활고래회(死中得活古來稱)  
 활중득사인무수(活中得死人無數)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는 옛날부터 드물었고 살려고 하다가 죽은 자들은 부지기수였다.

## 나와 부처가 무엇이 다른가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 나의 아픔에서 남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면 우주만상이 자신을 따르게 된다. 우주만상 또한 나의 그림자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일심 믿음으로 실천수행하면 번뇌의 고통과 아픔도 치유되어 허상과 마군은 사라지고, 보는 것이 모두 즐거움이요, 듣는 것도 또한 희망의 노래 소리일 것이며, 마침내 밝은 지혜 얻어서 참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이 자유인의 진정한 행복이다.  
 제방의 남자들은 이제부터 한 절, 한시각이라도 귀중한 보배로 알아 헛됨이 없이 수행에 매진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  
 불성당현현(佛性堂顯現) 유정불능견(有情不能見)  
 약인오무아(若人悟無我) 아불면하주(我佛面何殊)  
 불성은 당당하게 드러나는데 정에 집착하는 유정은 보이지 못한다. 만약 사람이 나란 것 없음을 깨닫는다면 나와 부처의 얼굴이 무엇이 다르랴!



## 한 생각 놓아야 한 걸음 나간다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대도가향본불심(大道家鄉本不深)  
 세인담중자난심(世人擔重自難尋)  
 약능방하흔무물(若能放下渾無物)  
 변견영산불조심(便見靈山佛祖心)  
 대도라는 근본 자리는 본래 먼 곳에 있지 않거늘 세인들이 무겁게 짊어지고서 찾기 어렵다 하네. 만약 내려놓아 혼연히 거리길게 없다면 문득 영산의 부처와 조사의 마음을 보게 되리라.  
 근본을 찾는다면 참 근본은 외면한 체 밖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해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애타게 찾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찾은 자 애쓰는 그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고 마

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못 잡념으로 잡념을 그치려고 하면 그치려 할수록 잡념만 더해지지만 성성한 일념을 이어가면 못 잡념을 굳이 그치려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생각이라는 일념은 무엇이겠습니까? 화두가 일념이요 무념이 바로 일념입니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고 하는 분별이 없는 근본의 일념(一念)을 말합니다.  
 혼연일체라는 말은 무념으로 내외가 명철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도리를 새롭



게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한 줄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공부하는 이는 무념의 권력(權力)으로 신심(身心)에 대한 집착을 끊고 경계에 대한 분별을 쉬어야 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한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조주 스님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음에 “없다”라고 하신 것은 온갖 사랑 분별에 대한 망상을 쉬고 오로지 천진면목에 다가서게 하는 형제 없는 징검다리라 할 것입니다.  
 일념지심즉시(一念之心即是)  
 하처별처심도(何處別處尋討)  
 대도지재목전(大道只在目前)  
 미도우인불묘(迷倒愚人不了)  
 일념의 마음이 그대로 이것어저는 어느 곳에서도 찾으려 하는가? 대도는 다만 눈앞에 있건만 미혹하고 어리석어 알지 못할 뿐이다.

## 지금 합장하는 자 누구인가?

### 덕송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바로 여러분 눈앞에 밝고 뚜렷하게 산승(山僧)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들은 누구인가? 합장하고 예배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각자 점검해 보라.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은 큰가 작은가, 긴가 짧은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 면목은 어떠한가 그 생김새는 어떠한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능히 볼 수 있는 주인공이란 무엇인가?  
 그러기에 옛사람이 그것은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눈앞에 있지마는 보아

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한결 같이 참되어 망념이 끼여들지 않을 때는 그 깨끗하기가 옛 거울과 같고 그 밝은 것이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비추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비추고 옛날과 지금을 비추는데 조금도 숨김이 없고 조금도 결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경계이며 또 여러분들이 옛 부터 지금까지



쓰고 또 써도 다하지 않는 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의심이 없습니까? 만일 있다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장자를 들어) 이것이 보이십니까? (주장으로 탁상을 치고) 이것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보고 듣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여 의심이 없으면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통은 없어지고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방하제연심변공(放下諸緣心便空)  
 종자대도자연개(從茲大道自然開)  
 활개양안명어월(豁開兩眼明如月)  
 도처봉인현고풍(到處逢人現古風)  
 모든 번뇌 놓아버려 마음이 공하니 이로부터 큰 도가 자연히 열리네.  
 두 눈이 일월과 같이 밝아져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참 모습 드러내네.

## 단박에 칼자루를 놓아 보라

###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주장자를 세 번 내려치시고 잡자코 계시다가 “아시겠습니까?” 대중이 아무 말이 없거늘, 대저 참선에 깨침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대신심과 화두를 드는 나와 화두 자체가 하나가 되는 대신심과 분통터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화엄회상에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일과 범화회상에서 8세된 용왕의 딸이 남방무구세계로 발길을 재촉하는 일과 또 열반회상에서 소잡는 백정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단박에 칼자루를 놓아 버리는 일 등이 같은 저들의 행보야말로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이같이만 하면 깨닫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비보살처럼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밤에 뒷집고 목심을 더 듣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이 만일 도리로 여기거나 늘어놓는 것이라 여긴다면 이는 업식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옛 부터 마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량 없는 겹으로부터 생사의 근본이거늘 어리



석은 사람은 본래의 경지라 여깁니다. 만일 사부대중 여러분이 빛과 소리를 그릇 알아서 집착하거나 짜고 싱거움을 그릇 알면 모두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모든 마음을 놓아 버리고 그렇게 했다면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끝자기가 메아리를 울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님은 천백 억의 몸을 나누고 대비보살은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을 갖추었습니다. 남자의 몸으로 선정에 들었다가 여자의 몸으로 선정에서 나오고 한 티끌에서 삼매에 들어갔다가 여러 티끌에서 삼매에서 깨어납니다. 말해 보십시오. 이럴 때면 어떠합니까?  
 전익분등육합운(展翼奔騰六合雲)  
 박풍고탕사해수(搏風鼓蕩四海水)  
 날개를 펴니 6합의 구름 위를 날고 바람을 울기니 사해의 바닷물이 소용돌이를 치도다.

## 아만의 섬나무 지고 불 속 가지 말기를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금년(今年) 삼동(三冬) 결제법문(結制法門)에는 아만(我慢)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공부(工夫)하는 이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아만(我慢)입니다. 고인(古人)의 말씀에 아만(我慢)을 가지고 공부(工夫)하면 섬나무를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禮拜)하는 것은 아만(我慢)을 조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지 않고 예배(禮拜)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세(近世) 선지식(善知識) 보문(普門)스님은 누구든지 찾아와서 당신에게 절을 하고자 하면 부처님께 먼저 예배(禮拜)하고 오라고 하였고 인옥

(忍辱)으로 유명한 법주사(法住寺) 석상(石箱)스님은 보은(報恩) 군수(郡守)가 만나러 왔는데 법당(法堂)에 안 가고 바로 오는 것을 보고 군수(郡守) 영감은 어째서 이 도장(道場)에 제일(第一) 어른이신 부처님께 예배(禮拜)하지 않고 오느냐고 크게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금년(今年) 겨울에 모인 결제대중(結制大衆)은 고인(古人)의 가르침에 따라 아만(我慢)으로부터 버리는 것으로 공부(工夫)의 기초를 삼기 바랍니다.




학도선회절만당(學道先?絶慢幢)  
 착아수도도불성(着我修道道不成)  
 영가증문육조갈(永嘉曾聞六祖喝)  
 빙석아만득돈오(氷釋我慢得頓悟)  
 도를 배우고자 하거든 먼저 아만심을 끊어라. 아만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가는 육조스님의 꾸지람을 듣고 아만심이 얼음처럼 녹아버리자 그 자리에서 크게 깨쳤다고 합니다.  
 금일대중(今日大衆)은 조계산(曹溪山)의 뜬 달을 보았습니까? 달은 차고 이즈러진 일이 없는데 중생(衆生)이 차별심(差別心) 때문에 초승달은 이즈러져 보이고 보름달은 둥글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늦어도 내년 해동(解冬) 때에는 이즈러지고 차기 이전 달을 나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주장자(拄杖子)를 세 번 구부르고 하좌(下座)하다.  
 전문은 한불뉴스에 있습니다.

보조사상연구원 | 제22차 국내학술대회

# 구산선사의 생애와 사상

\*일시 :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법륜사 대웅보전 \*문의 : 02)733-5311



**초대의 말씀**

대자 대비한 부처님의 가호 속에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시절인연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보조사상연구원에서는 “구산선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2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원으로써는 이러한 뜻 깊은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불교계의 선학자들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귀하의 고견을 들려주시고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이법산 함장

**학술대회 일정**

» 제1부 식전 행사 [10:30 - 11:00]

- 사회 : 황정일(본원 기획실장)
- 삼귀의례
- 반야심경 봉독
- 인사말 : 법산 스님(본원 원장)
- 격려사 : 현호 스님(본원 이사장)
- 축사 :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 제2부 기조 강연 [11:00 - 11:50]

- 법산 스님(본원 원장) : 구산선사의 생애와 사상

• 점심공양 [11:50 - 13:00]

» 제3부 주제 발표 I [13:00 - 14:40]

(1) 신규탁(연세대 철학과 교수) : 구산 선사의 상당법어집 「구산선문」 분석 시론

- 사회 : 정도스님(동국대 선학과)
- 논평 : 인경스님(동명대학교원대 교수)

(2) 김방룡(충남대 철학과 교수) : 九山 秀蓮의 禪 사상 - 普照禪의 계승과 관련하여

- 사회 : 정도스님(동국대 선학과)
- 논평 : 종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 휴식 [14:40 - 15:00]

» 제4부 주제 발표 II 및 총평 [15:00 - 16:40]

(3)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 1950년대 구산 수련의 종단 정화운동

- 사회 :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논평 : 김경집(전국대학원 교수)

(4) 문경순(전북대 철학과) : 九山 秀蓮의 불교대화화과 한국불교의 세계화

- 사회 :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논평 : 오경후(한국불교 선리연구원)

• 총평 [16:40]

(5) 강건기(전북대 명예교수)

» 사후서원 및 폐회사 [17:30]

Bojo  
Research  
Institute